

안채, 사랑채의 재해석을 통한 職住統合型 住居 類型 開發에 관한 研究

金 鍾 憲

(培材大學校 土木建築工學部 助敎授)

1. 序論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과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사무 환경의 변화는 지금의 일상생활과는 다른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듯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 '사이버 아파트(Cyber Apartment)'라는 이름이 각종 언론매체에 등장하고 있으나, 초고속통신망이 설치되었다는 것만으로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주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집안에 아무리 통신시설이 잘되어 있고 사무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하더라도 주거(住居)의 기능을 훼손시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주거가 아니며, 또한 주거 기능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보다 복잡해질 사무를 충분히 소화해 내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현재의 '주거공간(住居空間)'에 단순하게 '사무공간(事務空間)'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주거공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정(家庭)의 생활공간(生活空間)으로서의 기능과 사무공간(事務空間)으로서의 기능, 다소 상반적인 두 가지 기능의 동시 해결은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주거공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발달에 따른 사회변화를 건축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단순히 건축 자체에 대한 문제만이 아닌 정보화를 삶 자체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주거 유형의 창출은 하나의 새로운 주거 평면을 계획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정보화 사회를 실질적인 생활로서 수용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정보화 사회를 위한 주거로서 흔히 회자되는 '재택근무(在宅勤務)를 위한 주거(住居)'는 현재의 주거형식에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할당하는 정도에 불과 하였거나,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요구하여 실현성에 있어서 문제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즉 주거의 평면구성에 있어서 주거의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할당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서 주거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계획안들은 정보화 사회를 위한 주거라기 보다는 과도기적 양상의 특성을 지닌 임시 방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거의 프라이버시를 가능한 한 보호하면서 사무 기능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계획안들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 이 연구는 2000년도 배재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주거 내에 사무기능을 포용하고 있는 이러한 계획 안들의 기본적 개념은 한국전통주거의 재해석을 통해 얻고 있다. 즉 우리 나라 주거의 안채와 사랑채에 대한 분리를 통념상으로 해석되어오던 유교의 남녀 유별이나 남존여비에 의한 공간 분리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랑채를 사회적 공간으로, 안채를 가정적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한국전통주거를 사회적 공간을 포용하고 있는 주거로 해석해냄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주거의 모형으로 발전되어갈 수 있음을 밝혀내고 자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에 사무기능과 주거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직주통합형(職住統合型) 주거가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위한 주거의 유형으로서 1) 판상형, 2) 타워형 3) 스킵플로워형 등 3가지 유형의 주거를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 변화와 주거

2-1 산업혁명과 도시주거의 변화

산업혁명 이후 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주택의 양적 부족과 질적 저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날의 아파트 개념으로 인식되는 건물 유형이 1730년대 파리에서 건축되기 시작하였다.¹⁾ 이제 도시 주거는 이전처럼 사치스러운 장식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도구로 변하게 되었다. 풍부한 장식적 표현은 죄악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형태의 단순함, 명료함, 검소함이 추구되었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강철이나 콘크리트 구조의 발전은 수직적으로 중첩되는 형태인 아파트 출현을 돕는 물리적 배경이 되었다. 새로운 설비와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의 건축에의 도입은 아파트 고층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주거에 대한 초기개념은 토니 가르니에(Tony Garnier, 1869~1948)의 공업도시 계획안(Cité Industrielle, 1901~1904, 사진 1)과 어거스트 페레(August Perret, 1874~1955)의 프랭클링가

(街)의 아파트(1903, 사진 2)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주거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대중을 위한 주거가 건축의 새로운 과제로 설정되었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가정은 더 이상 생산을 위한 단위가 아니었다. 가정의 사회적 중요성은 과거에 비하여 줄어들었고 가정의 구성원도 과거에 비하여 단순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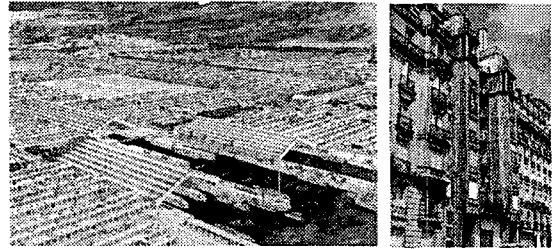


사진1. 공업도시계획안

사진2. 프랭클링가 아파트

근대건축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었으며, 사회는 개인의 집합이라는 단순한 개념이었다. 이들은 완전 고용의 사회를 이상적 사회로 생각했고 단위 주거의 규모 또한 주부가 직장을 가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었다. 가사노동에 의존하던 여러 기능들을 공동시설 및 공공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으로 변환시킴으로서 주거에서의 사회적 성격은 배제되었고 '단위 주거'는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한 최소단위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바이젠호프 주택단지계획(Weissenhof Siedlung, 1927, 사진 3)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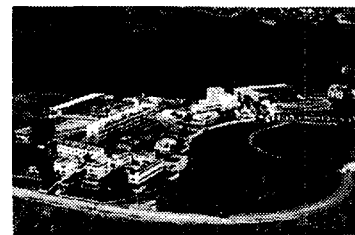


사진 3. 바이젠호프 주택단지계획

근대건축가들은 바이젠호프 주택단지 계획을 통해 관습적인 모울딩과 정교한 디테일을 제거하면서 장식을 배제한 새로운 미학적이고 철학적인 건

1) 이정수, 고층아파트의 외관 디자인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2, p.20 집합주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던 것은 기원전 1세기경 제정 로마시대라고 할 수 있다. (손세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1993, p.82)

해를 갖도록 선도하였다. 여기서 수립된 기준은 이후 50년간 근대건축의 형태와 의미에 영향을 주었다.²⁾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도시 주거에 대한 문제를 양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획일화되고 몰개성에 대한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해 제이콥스(J. Jacobs)는 「 위대한 미국 도시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961) 」에서 도시를 주거와 일터 그리고 휴식공간 등의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단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기에 이르렀고, 1972년 세인트 루이스의 프루트-아이고 주거단지(Pruitt-Igoe, 사진 4)가 해체되면서 근대 주거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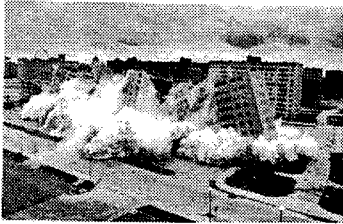


사진 4. 프루트 아이고 주거단지의 폭파 모습

이에 따라 획일화되고 몰개성한 아파트에서 탈피하려는 노력과 함께 최근에는 설계에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⁴⁾ 또한 근대건축의 공동주택에서 잃어버렸던 과거의 도시적, 역사적 맥락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⁵⁾ 환경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환경친화적 방법들이 제기되고 있다.

2-2 정보화 사회와 주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근대건축에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산업혁명 이후 교통 발달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의해 현재의 공동주택이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에 의한 새로운 주거공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산업혁명 이후 기존의 생활양식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 통신 발달에 따른 정보화 사회의 주거는 산업화 사회의 주거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엘빈 토플러는 그의 명저 「제3의 물결」에서 집 근처에서 일을 하던 산업혁명(産業革命) 이전의 세계에서 모두 집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세상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예견한 바 있다. 그의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산업사회 이전에는 직·주근접(職·住近接)의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되면서 직·주분리(職·住分離)의 사회로 되었다가 다시 정보화 사회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직·주통합(職·住統合)의 사회로 되어간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의 주거와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주거 유형과의 큰 차이 중 하나가 직장과의 주거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아파트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에 비해 앞으로의 주거는 직장과 주거가 하나로 통합되어 주거 내에서 사무기능을 통합하는 주거가 새로운 주거의 한 유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직주통합형(職·住統合型) 주거가 중요한 주거의 한 유형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손세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1993, pp.279~282
 3) William J.R. Curtis는 이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숙입수를 쓴 전문가들에 대한 대중들의 복수라고 표현하고 있다. William J.R. Curtis, modern at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1996, p.449
 4) 에른스킨(R. Erskin)과 크롤(L. Kroll)에 의해 주도 되고 있는 이 운동은 비커 월 주거단지(Byker Wall, 1969~75)을 통해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루뱅(Louvain) 대학의 기숙사도 이러한 개념에 의해 시도된 작품이다.
 5) 로시(A. Rossi)와 크리에 형제(Leon & Rob Krier) 로 대표되는 소위 유희론자들의 접근 방법이다. 1974년 레온 크리에에 의해 제안된 영국 런던의 '로얄민트 스퀘어(Royal Mint Square) 주거단지'가 이러한 접근 방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보필(R. Bofill)의 아르카드 뒤락(Arcades du Lac, 1974), 마르느 라 발레(Marne la Vallée)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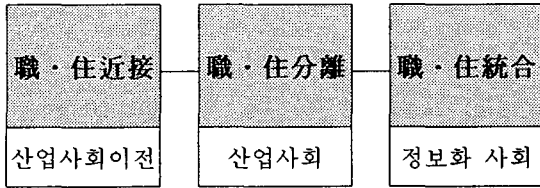


표1. 사회 변화에 따른 주거양상의 변화

따라서 주거 내에서 사무기능을 통합하면서도 주거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거공간과 사무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의 주거에서 매우 중요한 계획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사이버 아파트, 재택근무를 위한 아파트와 같이 기존의 아파트 공간에 단지 사무실만 하나 갖고 있으면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겠다. 집안에 아무리 통신시설이 잘되어 있고 사무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거의 기능을 훼손시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주거가 아니며, 또한 주거(住居) 기능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보다 복잡해질 사무를 충분히 소화해 내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가정의 생활공간(生活空間)으로서의 기능과 사무공간(事務空間)으로서의 기능, 다소 상반적인 두 가지 기능의 동시 해결을 통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주거공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3. 한국전통주거와 정보화 사회의 주거

남녀의 사회적 역할은 주거 형태 및 공간 구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지탑리 주거지 등 수혈주거를 볼 때, 출입구 근처의 석기가 출토된 부분은 남성의 작업, 활동공간이며, 노(爐)가 놓여져 있는 집 안쪽의 토기가 주로 출토된 부분이 여성의 가사작업 공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⁶⁾ 이처럼 남성들이 쓰던 석기와 여성들이 사용하던 토기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출토된 것은 수혈주거 안에서도 남녀 또는 기능에 의한 공간분화의식이 싹튼 것으로

로 생각할 수 있다.⁷⁾ 라포포트(Amos Rapoport)는 남자가 자기의 집을 갖지 않고 여자의 집을 방문하는 아프리카의 예로부터, 남자와 여자가 언제나 별거하는 이집트 등의 예를 들면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주거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⁸⁾ 따라서 남녀의 성에 따른 공간 분화는 우리 나라의 주거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라고 하겠다. 또한 남녀유별의 의식을 갖고 있는 조선시대(朝鮮時代) 주거(住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 전통주거의 안채와 사랑채에 대한 분리를 통념으로 해석되어오고 있던 유교의 남녀유별(男女有別)이나 남존여비(男尊女卑)에 의한 공간 분리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랑채를 '사회적공간(社會的空間)'으로, 안채를 '가정적공간(家庭的空間)'으로 재해석하여, 한국전통주거를 주거 내에 사회적 공간을 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직주통합형주거가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하나의 주거유형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국전통주거의 안채, 사랑채의 공간구성을 직주통합형(職住統合型)의 미래주거 개념으로 발전시켜보고자 한다.

3-1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사랑채

사랑채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랑채 공간의 많은 변화를 가져온 16~17세기의 사회상의 변화를 15세기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⁹⁾ 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사회구조였던 15세기 조선초기는 노비와 양인(良人)으로 크게 양분되어¹⁰⁾ 국민을 사적으로 지배하는 중간 지배층이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주거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 자체로서 족하며 사회적 기능을 수용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나 왕도정치를 표방하는 16세기 이후는 이와 성격이 다르다. 정치, 경제, 군사, 교육의 각 방면에서 국가 주도권이 비대해지는 것을 배경하고

6) 김정기, 한국주거사, 한국문화사대계IV, 고대민족문화 연구소, 1970, pp.120~121

7)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94, p.16

8) Amos 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1969, p.65

9) 이에 대해서는 金鍾憲·朱南哲, 「韓國傳統住居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分化 過程에 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12권 2호, 1996.2 참조

10) 한영우, 조선전기 사회경제연구, 을유문화사, pp.393~413

인문적 교양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체제를 희구하게 되었다. 향촌사회는 국가의 지배로부터 사람의 지배로 서서히 전환되어 갔다.¹¹⁾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주거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향촌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일정한 '공간(space)'을 필요하게 되었고,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주거 공간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사회구조에서 있었던 조선 전기 주거의 공간 구성은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의한 주거의 변화 과정을 정약용(丁若鏞)은 「雅言覺非」¹²⁾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옛날 풍속에는 안집(內舍)은 넓고 크고, 바깥집(外舍)은 낮고 작으며, 다른 남무가 없으므로 중국 사랑(斜廊)의 이름을 모칭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바깥집(外舍)이 더욱 넓고 크므로 사랑(斜廊)이라는 이름은 더욱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사랑(斜廊)은 원래 외사(外舍)도 아니었고 유교의 남녀유별의식(男女有別意識)에 의한 남성공간(男性空間)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¹³⁾

정약용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증문에 가로 놓여 있는 손님을 접대하는 조그마한 사랑(斜廊)이 의미가 바뀌어 넓고 큰 외사를 지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 외사(外舍)는 바깥에 낮고 작은 행랑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부속 채 정도의 집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사랑(斜廊)이 후에 어떻게 사랑(舍廊)으로 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외사의 청사와 손님을 접대하는 사랑이 합쳐져 사랑(舍廊)이 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 사랑채를 「부부별침(夫婦別寢)」¹⁴⁾에서와 같이 단지 남자들의 잠을 자는 공간으로 보기에 그 규모나 기능이 크고 복잡하다고 하겠다.

아무튼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주거공간은

사회적 기능과 가정적 기능이 혼합되었고, 사람들에 의해 유교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던 16세기 17세기를 거치는 동안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면서 사랑채는 보다 확장되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평면구조로 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람들의 향촌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가 유교원리와의 어느 정도 일치됨에 따라 점차 정착되어 간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써 사랑채는 자연스럽게 남자들의 활동무대가 됨과 동시에 남녀유별의 유교의식이 주거 내에 표현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채를 통해 유교적 소양을 닦고 혈연 혹은 문벌간의 의견을 모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향촌사회에서 유교적 이상향을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랑채의 본질적 의미를 유교의 남녀구별이나 남존여비에 대한 의식을 구현시키기 위한 '남성공간(男性空間)'으로서보다는 향촌사회에서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주거 내에 '사회적 공간(public space)'을 포용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활동을 주로 남성이 담당하다보니 남성들의 활동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남성공간과 여성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사랑채가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랑채가 만들어졌으며, 사회적 활동을 주로 남성이 담당하게됨에 따라 남성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여겨졌다는 것이다.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당시의 상황에서 주거 내에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갖고 있는 공간의 구축은 매우 당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하겠다. 이는 사회적 기능이 거의 없는 현재의 주거에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3-2 가정적 공간으로서의 안채

주거 내에 사랑채라고 하는 사회적 공간을 포용하게 됨에 따라 주거 공간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주거 내에 사회적 성격을 지니는 공간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가정의 프라이버시 확보는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안채는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랑채와의 분리를 시도하게 되었고, 점차 대외적으로 폐쇄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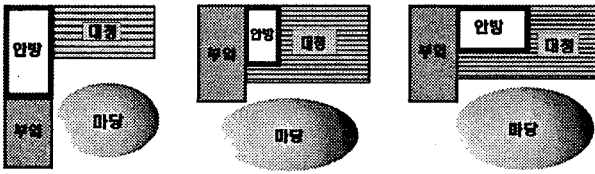
11) 한영우, 앞책, pp.412~413

12) 丁若鏞, 雅言覺非, 김중권 역, 일지사, 1976, p.216

13) 金鍾憲·朱南哲, 「韓國傳統住居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分化 過程에 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 112권 2호, 1996.2, p.84

16세기에서 17세기를 거치는 동안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제한 내지 사회적 지위의 축소는 상대적으로 가정 내에서 역할과 권한의 증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의 공간 구성도 변화가 수반되어 대외적으로는 폐쇄적이지만 대내적으로는 개방적 공간 구성이 필연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유교적 이상세계를 현실 생활에서 실현하려 하였던 사람들의 주거(住居)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사람들의 주활동 무대인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방의 주거에 있어서 □자형 평면구조의 변화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손동만가옥 안채 (15세기) 독락당 안채 (16세기) 하회 양진당 안채 (17세기)

그림 1. 안채 구성 형식은 마당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손동만씨 가옥 등 조선초기에 가까운 민가는 안방이 부엌에 가로막혀 오히려 마당을 향해 폐쇄적인 공간 구성을 한 반면, 예안 이씨종가, 하회의 양진당, 충효당 등 조선후기 □자형 민가의 경우, 안방이 부엌과 평행하여 구성되며 안마당을 향해 보다 개방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¹⁴⁾

14) 이에 대해서는 이유미, 「조선 전기 상류주택의 안채 구성에 관한 연구」(연세대 석사논문, 1988, pp.44~66) 참조. 안채의 평면 유형에 대하여 정인국은 「한국건축양식론」(일지사, 1985)에서 '경기형'과 '민가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경기형'은 주로 경기지방에 분포하는 형식으로, 부엌이 안방 앞에 위치하여 궁궐의 침전에서 유래한 형식으로 보고 있다. '민가형'은 부엌이 안방의 측면에 위치하여 민가에서 유래한 형식으로 보고 있다. '민가형'을 침전형식에서 유래한 '경기형'과 구별하는 방식은 필자의 시각과 유사한 면을 지닌다고 하겠다. 최일은 「조선 중기 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1989)에서 평면유형보다는 안채의 실구성형식에 주목하여 경기형에 해당하는 형식을 '귀임형'으로 민가형에 해당하는 형식을 '일렬형'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일렬형과 귀임형의 변화과정에 대한 최일의 분석에 의하면 1700년대에는 19:22, 1700-1800년대에는 21:30으로 조선 후기에서는 143:82로 점차 안방의 구성이 부엌과 평행한 일렬형이 늘어남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김기주와 김성우는 「16세기를 전후한 민가의 형식 변화와 가례」(건축역사학회 제4권, 1993.12, pp58-59)에서 대청

또한 조선 초기의 주택은 안방과 건넌방이 대칭형으로 거의 같은 면적을 구성하고 있으며 16세기의 독락당을 거치면서 17세기 이후 예안 이씨종가, 양진당, 충효당 등 조선 후기 양식은 안방에 비해 건넌방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즉 안채의 구성형식이 초기에는 안방이 대청을 중심으로 건넌방과의 연결이 중심이 된 반면, 후기는 부속채 등으로 둘러싸여있는 마당을 중심으로 가사의 일을 총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안채의 공간구성으로만 본다면 조선초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며 개방적인 구성을 지니게 된다. 안채를 단지 여성의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이런 평면 변화를 설명하기 힘들다.

안채의 이러한 성격변화는 진입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조선 중기 이후 안방과 연결되는 뒷마루 부분에 신발을 벗어 놓는 탯돌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뒷마루의 길이도 6자에서 8자까지 증가되고 있으며, 안방 문의 높이가 높아지고 문턱의 높이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진입방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진입방식의 변화는 안채의 공간 이용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안방과 마당과의 관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안채의 적극적인 공간구성은 조선 후기에 이를 수록 남부지방임에도 불구하고 홑집에서 퇴간집과 겹집으로 간(間)구성이 변화되어가고 점차 겹집화에 따라 실의 기능분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즉 부

형 안채와 비대칭형 안채로 나누어 가례의 실시,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 즉 농업경제의 발달에 의한 부의 축적과 그에 따른 양반층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비대칭형 안채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논문에서는 가례의 보급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차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모든 주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남지방의 □자형 주거에서도 다소 혼재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1930년대 서울 북촌의 도시형 한옥에서는 부엌 뒷편에 안방이 위치하는 경기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송인호, 「도시형한옥의 유형연구-1930년-1960년의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러한 안채의 공간 구성 변화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15) 최일, 조선 중기 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계층성과 지역성의 관점에서 본 배치와 평면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1989, p.93

일부분이 기능적으로 구성되고, 안방 부분에 수장공간이 접속되고, 뒷마루의 발달에 따른 진입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16) 안채는 사회적 역할을 하는 공간이 주거 안으로 들어오게됨에 따라, 부속 건물들을 통해 폐쇄적으로 구성을 한 반면 가정적으로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적극성을 지닌 개방적인 공간 구성을 갖게 된다. 외부 사회에서의 안채에 대한 폐쇄성은 오히려 안채의 기반부를 높임으로서, 안채에서 바라다보는 정면이 외부 하늘이 되게 하여 내부에서 외부로의 시각적 개방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안채는 남성공간과 대립적 혹은 종속적인 여성공간으로서 보다는 사랑채의 사회적 기능의 수행에 따른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4. 직주통합형(職住統合型) 주거유형 17)

안채, 사랑채에 대한 해석을 유교의 남녀유별에 대한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변화과정에서 의해 사랑채는 주거 내에 사회적 공간을 포용하는 개념으로, 안채는 이러한 사회적 공간을 주거가 포용함에 따라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재해석해보았다. 조선 중기 이후 사회적 발전에 따라 사회활동의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는 사회적 활동의 영역을 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주거는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를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주거 내에서 사회적 활동과 가정적 활동은 어느 정도 분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랑채는 점차 분리되어 갔으며, 안채는 대외적으로 폐쇄적으로 되어가면서 가정의 모든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중심공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남녀유별(男女有別)에 대한 의식을 구현하기 위해 안채, 사랑채가 분리되었다기보다는 사회변화 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안채, 사랑채가 분리되면서, 이러한 공간 구성이 당시의 사회적 특성상 남성공간과 여성공간을 분리해 놓은 것처럼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재택근무(在宅勤務)

를 위한 직주통합형(職住統合型) 주거 구성에 있어서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안채, 사랑채의 재해석을 통한 직주통합형(職住統合型) 주거 유형으로 1) 판상형 2) 타워형 3) 스킵플로워형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4-1 판상형

직주통합형(職住統合型) 주거 유형으로서 판상형 주거의 평면도(그림 2, 3, 4)를 보면 현재의 공동주택 평면과는 다른 공간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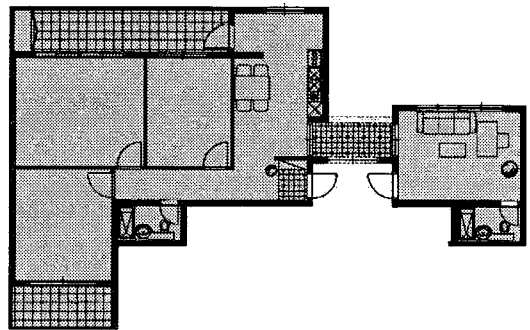


그림 2 판상형 평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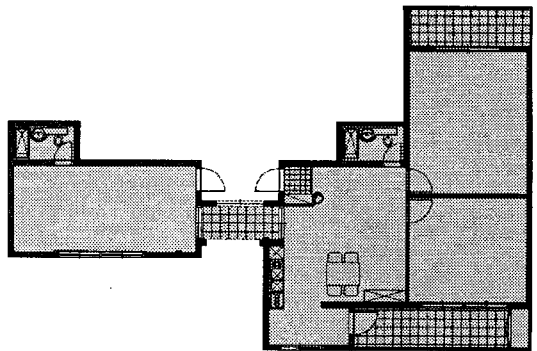


그림 3 판상형 평면도 2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이 계단실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두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안은 계단실이 옆으로 놓여 두 세대가 태극무늬처럼 서로 얽혀져 있다. 또한 각 단위세대의 공간 구성은 발코니를 사이에 두고 가정공간과 사무공간이 분리되고 있다.

16) 최일, 전계논문, p.176

17) 여기에서 제시한 안은 2000년 9월 4일 제0203130호로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안으로 이 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필자에게 귀속되어있음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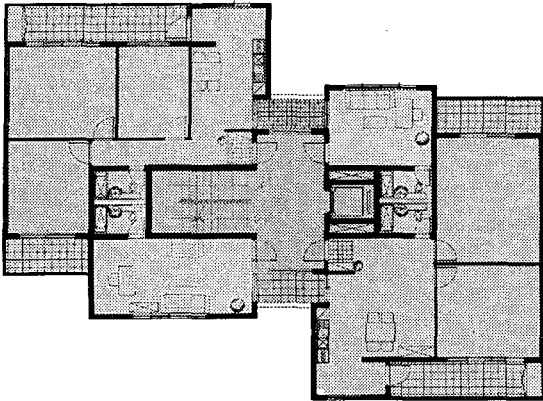


그림 4 두 평면의 결합된 모습

마치 구례 운조루(그림 5)의 공간 구성에서와 같이 사회적 활동을 위한 '사무공간'과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가정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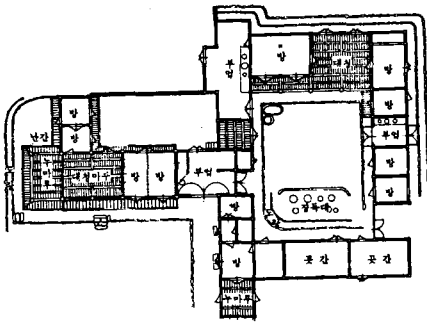


그림 5 구례 운조루 (출처:정인국,한국건축양식론) 안채와 사랑채의 분리와 연결이 매우 유기적이다.

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으로의 출입은 계단실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다. 주거 내에서는 외부로 뚫려 있는 발코니를 통해 '사무공간'으로 출입할 수 있다. 외부 공간인 발코니를 사이에 두고 '가정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한 의도는 거리는 가깝지만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내부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분리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를 지닌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신발을 벗고 또 신으면서 출입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분리효과를 더욱 강하게 하도록 의도하였다.

따라서 발코니는 '가정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시키고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서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에 빛과 채광 및 환기를 시켜주고 있다. '사무공간'은 화장실 등 부속실을 갖고 있어서 업무를 보는 동안에 안채에 해당하는 '가정공간'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정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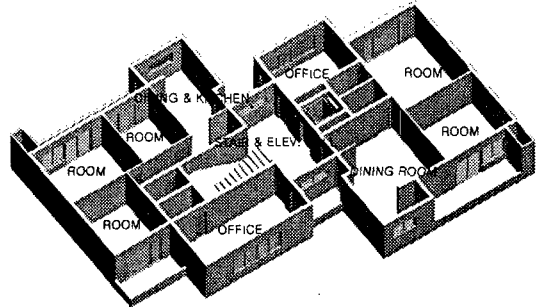


그림 6 판상형 정보화 주거 3차원 모델링

또한 이 '사무공간'은 업무가 끝난 저녁에는 거실의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함으로써 본채에서 거실을 없애고 식당과 주방공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는 가족간의 대화나 모임이 주로 식사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점차 주거 내에서 식당과 주방의 비중은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단위세대의 분양면적 등에 있어서도 거실을 '사무공간'으로 분리시켰고 '가정공간'과 '사무공간'의 연결은 발코니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분양면적과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다. 본 안에서 제시한 면적은 분양면적 32평과 28평을 결합시킨 것이다. 이러한 단위세대를 결합시킨 주동결합은 그림 4와 같다. 계단실의 채광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세대에서 사무공간으로 진입을 위한 발코니를 통해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그림 7은 이러한 단위 평면들이 결합된 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선형, 파도형 등 다양한 블록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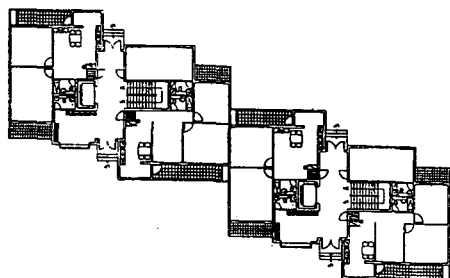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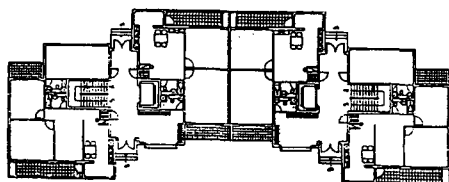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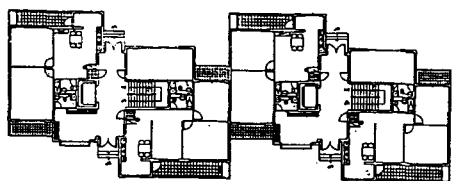


그림 7 판상형 정보화 주거 블록 평면도 유형 (사선형, 파도형, \cap 자형)

4-2 타워형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판상형과 유사하다. '사무공간'과 '가정공간'을 분리하고 그 두 공간은 발코니나 난간 등 외부공간과 면한 공간을 통해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이 부분을 마루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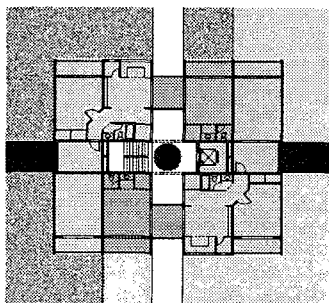


그림 8 타워형 평면도

타워형은 한 블록에 두세대 만을 결합시켜 초고층이나 고층으로 올릴 수 있다. 판상형의 주거가 도심이 아닌 교외나 현재의 주거지에 활용성이 높다고 한다면 타워형은 도심의 좁은 대지에 적용할 수 있고 4면이 모두 외기에 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젊은 벤처 사업가 등이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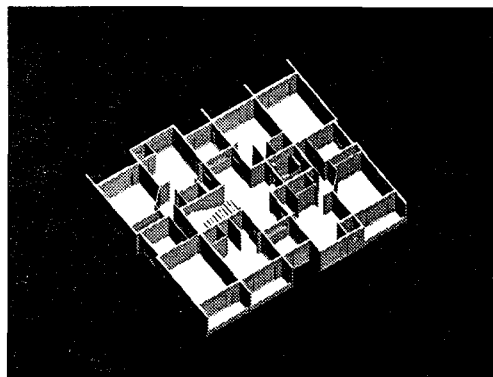


그림 9 타워형 블록의 모델링

4-3 스킵플로워형

스킵플로워형(Skip Floor Type) 역시 앞에서 언급한 판상형(Flat Type)이나 타워형(Tower Type)주거와 그 기본적 개념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앞에서의 판상형과 타워형이 동일한 층에서 '사무공간'과 '가정공간'이 분리되었던 것과는 달리 스킵 플로워형은 '가정공간'과 '사무공간'이 반층 정도 차이를 지니고 있다. 스킵 플로워형은 높이에 대한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정공간'과 '사무공간'에 대한 분리가 보다 더 명확해질 수 있다. 즉 판상형이나 타워형의 발코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단으로 설치하여 두 공간의 분리를 시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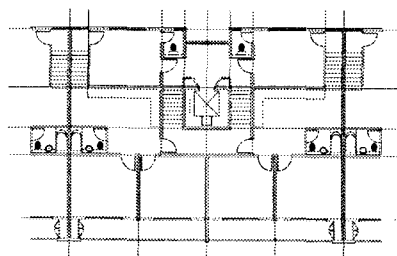


그림 10 스킵플로워형 평면도

이러한 개념에 의해 보다 다양한 방안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타워형과 판상형에서 보이고 있는 방식과는 달리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계단이 엘리베이터를 감으면서 올라가는 방식을 취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계단실의 계단참이 '가정공간'으로 출입이 이루어지는 주 출입구가 된다. '사무공간'으로의 출입은 사람들의 출입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여 엘리베이터 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치를 하였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홀은 외부에서 직접 환기나 채광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가정공간' 내부에서 '사무공간'으로의 출입은 부엌 및 주방 공간을 거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계단으로 나갈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가정공간'과 '사무공간'에 대한 분리성이 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타워형이나 판상형보다 외부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사무실에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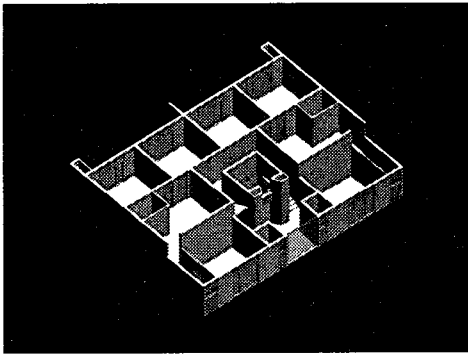


그림 11 스킵플로워형 컴퓨터 모델링

5. 기대효과 및 활용가치

컴퓨터 기술,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을 한층 앞당겨 왔으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정보화 사회란 사람들의 생활 환경 자체가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보화 사회가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발전만을 통해서 이룩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사회구조가 이를 뒷받침해주어 사람들의 생활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주거의 양상도 변화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거의 변화 중 주목할만한 부분은 주거 내에 '사무공간'의

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무공간'이 주거 내에 포용되면서 '사무공간'을 주거공간과 어떻게 적절히 분리해나가는가가 계획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무공간과 가정공간의 분리에 대한 개념이 대지가 넓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만 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두 공간의 분리에 대한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에서는 사무기능과 주거기능의 분리에 대한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건축 계획적 수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물리적 거리의 인접성에 대한 한계를 '가정공간'과 '사무공간'과의 분리를 높이에 대한 단차, 나무와 콘크리트 등의 재료의 분리, 진입방식에 있어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내부로 들어가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 독특한 생활습관인 신발을 벗고 신는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주거 내에 사회적 공간을 포용하고 있는 개념 자체도 한국전통건축의 안채와 사랑채에 대한 개념을 가정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으로 재해석해냄으로서 한국전통건축이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주거의 원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 제시된 재택근무(在宅勤務)가 가능한 직주통합형(職住通合型)의 새로운 주거 유형은 벤처기업이나, SOHO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문적인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취미실 또는 전통주거에서의 사랑채와 같은 주거 내에서 이웃간에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자면 산업혁명에 의해 직주(職住)가 분리됨으로써 야기되고 있는 교통 체증, 에너지의 낭비,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통주거의 안채와 사랑채를 '가정적공간'과 '사회적공간'으로 재해석해봄으로써 사회적 공간을 포용하고 있는 진보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음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하나의 주거 유형으로서 직주통합형 주거 유형을 제시하여 이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 (1) 판상형
- (2) 타워형
- (3) 스킵플로워형

이 세가지 유형의 주택은 '사무공간'과 '가정공간'을 독자적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됨으로서 각각의 공간이 침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한정된 공간에 대한 물리적 한계는 높이에 대한 차이와 재료에 대한 차이를 이용하거나 '가정공간'에서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사무공간'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통해 심리적으로 분리된 느낌을 강하게 받도록 하는 등 계획학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해 제시된 안들이 구체적으로 축조되어 생활화가 이루어진다면 주거공간에서 사무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됨에 따라 주거에서 사무실로 이동해야만 하는 불필요한 교통유발을 억제하게 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사무실과 주택을 분리함으로써 야기되는 도심공동화 현상 및 토지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주거 유형의 창출은 하나의 새로운 주거 평면을 계획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정보화 사회를 실질적인 생활로서 수용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김광언, 우리생활 100년·집, 서울: 현암사, 2000
2. 김광언, 한국의 주거 민속지, 서울: 민음사, 1988
3. 김기주, 朝鮮時代 中期 이후 班家の 공간사용과 평면형식에 미친 家禮의 영향, 연대박사논문, 1994
4. 김기주, 김성우, 16세기를 전후한 반가의 형식 변화와 가례, 건축역사학회 제4권, 1993.12
5. 金鍾憲, 朱南哲, 한국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

와 사랑채의 분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 12권 2호, 1996.2

6. 金正基, 韓國住居史, 韓國文化史大系 IV,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0
7. 손세관, 도시주거형성의 역사, 열화당, 1993
8. 송인호, 도시형한옥의 유형연구-1930년- 1960년의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1990
9.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上·下, 서울:열화당, 1991
10. 李舜九, 朝鮮初期 内外法の 成立과 展開, 淸溪史學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淸溪史學會, 1988
11. 李有美, 朝鮮前期 上流住宅의 안채 構成에 관한 연구, 연대석사논문, 1988
12. 이정수, 고층아파트의 외관 디자인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2
13. 이호열, 朝鮮前期住宅史研究 -家事規制 및 溫突에 관련된 文獻을 중심으로-, 영남대박사, 1991
14. 丁若鏞, 雅言覺非, 金鍾權역, 서울:一志社, 1992
15. 최일, 조선 중기 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16. 朱南哲, 韓國住宅建築, 서울:一志社, 1985
17. 朱南哲, 한국의 전통민가, 서울:대우학술총서 논저 아르케, 1999
18. 朱南哲, 韓國建築史,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19. 韓永愚, 朝鮮前期 社會經濟 研究, 서울:乙酉文化社, 1991
20. 홍형욱, 한국주거사, 서울:민음사, 1990
21. Davis, Sam, The Form of Housing, New York, VNR, 1977
22. James Steele, Today Architecture, Phaidon, 1997
23. Rapoport, Amos, House Form and Culture, Englewood Cliffs:Prentice Hall, 1969
24. Pawley, Martin, Architecture versus Housing, Praeger Publishers Inc., 1971
25. Sherwood, Roger, Modern Housing Prototyp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26. William J.R. Curtis, modern at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1996

Development of Houses for Information Society through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Korean Traditional Houses

Kim, Jong Heon

(Assistant Professor, Paichai University)

ABSTRACT

Until now, we have a great progress in computer hardwares and computer softwares. Many people think these days as the information time or information society. Even though, we make a great progress in the computer science, we can not regard this society as the information society, if we do not accept the development of computer in our real life.

In order to provide desirabl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information - society, it is necessary to review previous housing projects from the Industrial - Revolution to these days. Thus this study deals with limits of modern housings. This research also suggests a new housing concept for the information - society by reinterpretation of the Korean traditional houses.

Use of space in the Korean traditional houses was mostly interpreted by the concept of sexual discrimination from Confucianism. However it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at An-Chae is a home space for providing privacy of family and Sarang - Chae is a social space for providing social activity. Thus it is found that the Korean traditional house has been used as office as well as home. In this view, it is suggested that Korean traditional houses be the prototype of future house as a business space and also as a home space.

In this study, 3 types of housing for the information - society are suggested; flat type, tower type and skip floor type. these houses have two entrances independently for the home space and the social space. Therefore each space has no interference with each other. Then one can do his own at home efficiently. He does not have to go to his office in downtown. One can relieve traffic congestions in the city and reduce air contamination.